



남천 예술인 마을 건물과 골목길

● 글·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 태평조경 남천예술인 마을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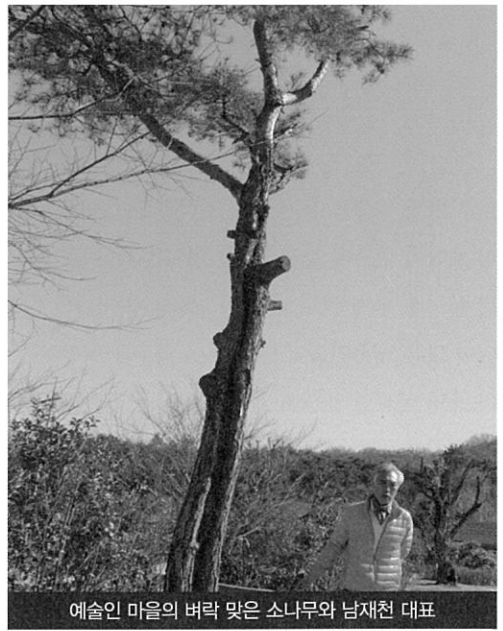
곡창 호남의 상징이며  
옛날부터 교통, 행정, 군사의 중심지인  
전라남도 나주시에 자리한  
남재천 태평조경 대표의  
남천예술인 마을을 찾았다.

## \* 호남의 고도나주

1100년전 목포에서 나주까지 영산강 120리 물길은 검붉은 화염에 휩싸인다.

왕건은 기습화공을 통해 견훤의 군선들을 공격하여 후백제의 교통, 물류, 군사 중심지인 나주를 빼앗는다. 후방 깊숙한 적진을 점령한 왕건이 시찰 중 빨래하던 처녀에 물을 청하고 버들잎을 띄워 급체를 방지 했다는 유명한 우물 완사천(浣紗泉) 또한 이곳에 있다. 버들 남자의 전설을 만든 고려 제2대왕 혜종의 생모 장화황후 오씨의

덕으로 고려시대에 더욱 번성하여 호남 지역의 거점 도시가 된다. 나아가 조선시대에는 내륙 나주에 전라우영이 설치되어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고, 목포에서 뱃길 48km의 완만한 수로는 황포 돛배가 다니는 항로 덕에 정부 세곡 관리하는 영산창이 설치되어 50여척의 배들이 항상 붐볐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는 나주평야의 곡식들이 일본으로 수탈되는 집산지로 영산포가 번창, 육지 속에 등대가 설치 된 호남의 중심지로 지금의 전라도라는 지명이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고도 나주에 이제 태평조경 남천예술인 마을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예술인 마을의 벼락 맞은 소나무와 남재천 대표

## \* 자연과 예술의 만남



남천예술인 마을 간판



남천예술인 마을입구 전경

남재천 태평조경 대표가 세운 남천예술인 마을의 남천(南天)이라는 뜻은 그의 성명 남재천에서 따온 것은 아니다. 남(南)은 따뜻한 남쪽을 의미하고 천(天)은 하늘 즉 모든 우주를 아우름을 의미한다하여, “따뜻하게 세상을 안아 새로움을 낳는다.” 라는 높은 이상과 넓은 뜻을 나타내는 것이란다.

설립 목적은 “자연적인 삶과 예술”로서 도시의 복잡함과 긴장속의 일상을 벗어나 예술인 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

로운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주민등록만 나주시로 이전 하면 무상으로 건물을 대여 평생 입주 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단지 전기료와 수도료, 연료비와 화재보험료 등 관리비만 본인 이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경제적 부담을 받지 않고, 독립된 건물과 자기만의 작업실을 갖추고 집 앞 뜰에 화단을 가꾸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 많은 예술인들이 앞 다투어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재 각 장르별로 광주, 전남지역 유명 예술인 20명이 입주해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전시회나 발표회 또는 현장 체험과 예술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보고 즐기고 참가하는 전남 지역 예술 발전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 \*조경수 농장의 작은 수목원



남천 예술인 마을 정원 조성 공사중

남천예술인 연못 조성 전경



남천 예술인 마을 산책로

남천 예술인 마을 산책로

남재천 대표는 1959년 이곳 나주에서 상업 가정의 3남 2녀중 둘째로 태어나 학업을 마친 후 20대 초반부터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한 청년 사업가로 이후 유원지 사업에 성공을 거두면서 환경분야와 택지 개발사업에 진출했다. 토목사업을 하면서 크고 멋진 나무들이 베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그때마다 하나 둘 이식하여 재배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소나무 전문 농장인 태평조경을 설립, 조경업에 진출하게 된다.

이후 일본의 조경수 농장들을 견학하면서 작은 면적에도 알찬 수목원들을 조성한 것에 매료되어 그 또한 나뭇대로의 멋진 조경수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일념으로 토지를 구하고 도로를 내고 자연석을 쌓아 나무를 심어 나갔다. 그러던 중 이왕이면 숙식도 하면서 자연과 나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품고 펜션을

결들이게 된다. 흙과 나무만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개성 있는 건물들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 환원이라는 높은 이상 아래 남천 예술인 마을이 탄생 한다.

## \*남천 예술인 마을 개관



남천예술인 마을 건축물들

남천예술인 마을 건축물들

남천 예술인 황토 건물

남천 예술인마을 건물들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해발 451m). 노령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내리다 맺어 놓은 산, 금성산은 서울의 삼각산과 같고 한강과 영산강 등 그 지세가 서울을 닮았다 하여 옛날부터 소경(小京) 즉 작은 서울이라 불려 왔다는 나주 고을의 금성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남천 예술인 마을. 앞에는 영산강이 흐르고 멀리 무등산이 보이는 나주 시내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에 2011년 10월 16일 “금성산 반딧불에 향기를 묻다”란 주제로 남천 예술인 마을 개촌식이 열렸다.

작은 수목원을 꿈꾸며 펜션을 결들이다 예술인 마을로 탈바꿈한 남천 예술촌은, 총 면적 11,000평에 18동의 건물들은 황토와 나무만으로 지어져 자연과 어울리게 하였으며, 지붕은 합당한 재료 선정이 늦어 현재 루핑으로 덮어 놓았으나 차후 잔디 등 친환경 재료로 대체할 계획이란다.

폐쇄성 짙은 전국의 수많은 예술촌과는 다르다. 일상의 번잡에서 벗어난 예술가들이 모여 창작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들만의 소양을 넓히고 정보를 나누며 우위를 다지는 더없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으며, 지나가는 길손들이나 가족단위 탐방객들에게도 개방되어 몸과 마음에 신바람을 일으키는 열린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 \* 나주성과 4성문



나주시내 남고문

곡창 호남의 상징이며 교통,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던 나주에는 과거 나주목사가 있던 내아가 지금도 남아있다. 나주성 3.7km와 동, 서, 남, 북에 있던 4대 문은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철거 훼손되었다가 근자에 남고문, 동점문, 서성문이 복원되고, 왕건과 장화황후의 전설이 깃든 우물 완사천은 소공원으로 정비되어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시내 북쪽에 자리한 밀양박씨 종가인 남과고택은 19세기 말에 지어

진 전남지역에서 제일 큰 단일건물 개인주택으로 민속학적이거나 건축학적 가치가 높고 집안의 가재도구와 공예품, 특히 지방별 종이류가 시대별로 갖추어 있다. 이외에도 반동치미 등 양반가에서 내려오는 남도의 먹을거리가 그대로 전해오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63호로 고택은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떠들썩하던 영산포구는 하구언 제방으로 사라지고, 축구, 배구, 야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갖춘 현대식 체육공원과 23,000평의 드넓은 꽃밭이 조성되었다. 봄이면 유채, 가을의 코스모스 축제로 유명 관광지 역할을 하며, 삭힌 흥어의 원조라는 명성답게 80여곳의 전문음식점들이 번성하여 있는 옛 추억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따뜻한 고을이다.

## \* 예술인 마을사람들



남천예술인 마을 도자기 공방

남천예술인 마을 서예실



예술인 마을의 수채화실



남천예술인 마을 숙박 시설

태평조정 남천예술인 마을에는 서양화, 동양화, 문인화, 수채화를 전공한 화가들과 바이올린, 피아노 그리고 국악을 하는 음악가와 남도 향토음식, 전통주, 천연항생제 어성초 발효의 음식분야 장인들, 서예, 문화기획, 사진, 도예, 천연염색, 짚풀공예 등의 작가들이 거주하고 있다. 각 분야 별로 나름대로 명성을 안고 일가를 이룬 각자의 개성과 특색이 강한 예술인들이 모여 교류하고 생활 하면서 서로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창작과 소통에 몰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은 그림과 사진 전시회를 갖고 화, 목요일은 음악회, 주말에는 전통 음식 체험행사 등을 마련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란다.

또 유명한 특산물 나주배의 배꽃이 만개하고 예술촌 진입도로 1km에 심겨진 벚꽃이 피는 4월이면 야생차 문화 축제와 된장, 고추장 만들기 및 도자기 체험 등 각종 전통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란다.

성탄절과 연말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향토음식 체험과 후계자 양성 교육으로 예술인 마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일반인들도 숙박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100여명이 이용 할 수 있는 숙박시설 2동과 휴식공간, 접견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앞으로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나 발표회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건립 예정 이란다.

## \*나눔과 배품의 조경인



남천예술인 마을 전경



나주서씨 사당 태평사 전경



나주시내 남파고택



남천 예술인 마을 장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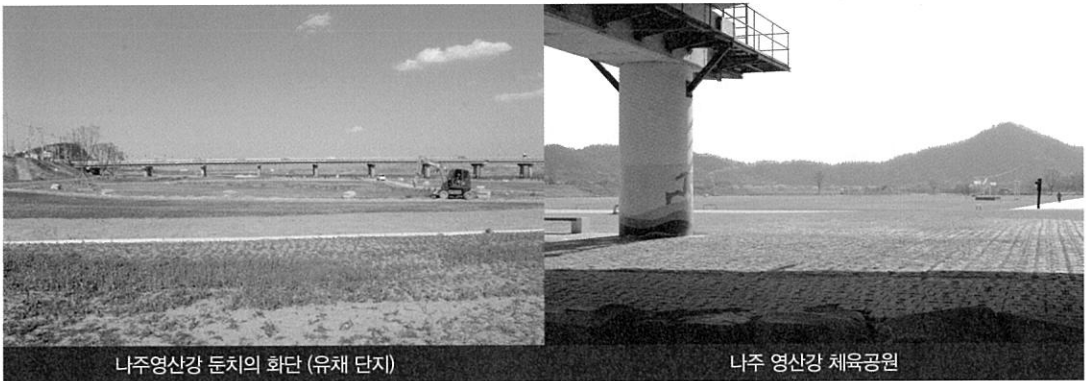
그는 기업의 사회 환원을 주창하고 실천하는 사업가이며 예술과 문화를 아끼는 조경인이다.

8년 전부터 사회 환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여 70억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조성한 예술인 마을은 큰길에서 1km정도 올라와야 하는데 입구에 연결된 나주서씨들의 사당인 태평사라는 멋지고 품위 있게 잘 조성된 정원과 건물이 갖추어진 이제는 유원지처럼 이름난 명소와 연결되어 있고 진입로 또한 그곳의 빛나무 가로수 길을 이용하게 되어 그 덕에 절로 돋보인다.

입구 자연석에 새겨진 간판부터 특이하며 사철나무 수벽의 산책로와 연못, 폭포, 정자들이 갖추어진 사이로 조경수들이 자리하고 전국에 3개밖에 없다는 희귀목 벼락 맞은 소나무가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기 힘든 희소한 수종들을 갖춘 수목원 조성이 목표란다. 이를 돕기 위해 우리 조경수협회 신임 광주, 전남 서부지회 허백현 지회장과 90여 회원들이 합심하여 각자의 농장에서 보유한 좋은 조경수들을 제공, 조경인으로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는 미덕의 주인공 남재천 대표를 돕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는 2005년 우리 조경수협회에 가입하여 누구보다 협회 사업에 앞장서 일해왔고, 특히 조경수는 유통, 판매가 어려운 것을 알고 그가 관련하는 토목, 건설 등 여러 사업체를 통해 회원들의 유통 업무에 적극 협조 해오고 있다. 현재 3만평의 농장에 자연생 굴취 소나무와 백일홍을 가진 조경인으로 금년부터 분회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그의 남다른 추진력으로 멋진 수목원이 탄생되리라 기대해본다.

남대표는 이제까지 30여 종류의 사업을 섭렵해왔고, 현재는 10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봉사과 자선으로 나주지역은 물론 전남 문화예술인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는 기업하는 조경인이다. 🌳



나주영산강 둔치의 화단 (유채 단지)

나주 영산강 체육공원